

## 止止齋 李商啓의 歌辭攷

李 鐘 出

차례	
一. 序 言	2. 內 容
二. 文獻(止止齋遺稿)攷	(一) 草堂 曲
三. 作者 攷	(二) 人日 歌
四. 作品 攷	3. 形 式
1. 製作年代	五. 結 言

## 一. 序 言

본고는 去年(1965年) 10月 15日 宇 朝大新聞에 개발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止止齋 李商啓의 歌辭(作品은 未發表)에 대한 좀더 본격적인 고찰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작자 李商啓는 아직, 世上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으며, 그가 지은 「草堂曲」과 「人日歌」라는 두 篇의 歌辭도 무른 未發表의 작품들이다.

필자가 이 작품을 보게 된 것은 1965年 10月 9日 韓글날에, 全南 長興郡 有治面 朝陽里에 있는 文晸斗君(朝大 國文學科生)의 본가 文儒根氏宅을 방문하여 고서를 열람하는 동안 「止止齋遺稿」라는 二卷一冊의 冊子를 넘기다가 偶然히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後項에서 상술하겠지만 작품중 韓글의 표기法이 古形을 그대로 維持하지 못하여, 아무래도 文集(止止齋遺稿)刊行 이전의 原本을 對照해 보아야 되겠기로, 그후 작자인 止止齋의 出生地요, 그의 後孫들이 살고 있는 全南 長興郡 藝山面 接亭里에 걸기한 文晸斗君이 가지 止止齋의 嗣孫인 李永淑氏를 만나 여러모로 탐문하여 보았으나, 最近에 필사한 「草堂曲全」<sup>(1)</sup>이라는 가첩 一卷을 얻어 보았을 뿐이었는데, 지난 3月 9日에 재차 방문하여 전기한 가첩과 합

註 1. <草堂曲全>은 縱 25cm 橫 20.2cm의 크기로 總 28張 56面(表紙除外)으로 韓紙에 魏體로 筆寫한 帖本인데, 李永淑(李商啓의 6代宗孫)氏의 말에 依하면 李商啓가 生存時 平素에 즐겨 부르던 노래(自作 및 作者未詳의 歌辭)를 손수 自筆로 적어서 엮은 歌帖을 筆寫한 것이라 하는데, 李商啓作의 草堂曲과 人日歌 外에 勸學歌·閨里歌·耕讀歌·獨樂歌·湛樂歌 등 모두 7篇의 歌辭가 收錄되어 있다.

계 參考資料인 隱亭集<sup>2)</sup>과, 그리고 宗孫인 李永淑氏의 말을 빌리면 「子孫之困沒로 사실상 原稿는 紛失하고 中間에 謄本한 冊」<sup>3)</sup>인 草堂曲과 人日歌만의 手寫本을 비로소 目見하게 되었다.

이로써 작자 李商啓의 자필본이 아님은 약간 아쉬우나, 그래도 當時의 原形을 그대로 유지하는 작품의 원본을 찾게된 셈이며, 이제 歌辭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文集(止止齋遺稿)과 작자에 관하여 먼저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 二. 文獻(止止齋遺稿)攷

현재 필자가 입수한 문집의 체제는 縱 28.8cm 橫 19.2cm의 크기로 표지 전면에는 「止止齋遺稿」라는 別刷의 標題가 붙고, 표지는 황색으로 된 고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每葉 12行 每行 26字씩 2號活字로 인쇄하여 西紀 1958년에 간행한 활자본이다.

그리고 내용의 면수는 序와 목록이 3張 6面이고, 卷之一이 25張 50面이며, 卷之二는 35張 70面으로 總 63張 126面으로 되어 있는데, 序文(止止齋遺稿序)은 濟州 梁會甲이 撰하였으며,

(1) 卷之一에는 自作 漢詩로서

五言節句가 〈山中雪夜〉〈屋漏〉〈太虛浮雲〉〈雜吟三首〉〈設講〉〈楊柳吟〉〈自家吟〉〈採薇二首〉〈題琴〉〈燈〉〈醒醉吟〉〈閒山吟〉〈題朴采皇友琴堂〉〈琴〉〈秋扇〉〈與諸友避暑于寶林悶鄭仁邦病未能偕行〉〈陽川齋與魏道及諸賢吟〉〈除夜韻〉〈階菊〉〈菊蒼〉〈謹和任公永源觀梅有感韻〉(七絕一首, 五絕一首) 그리고 〈草堂八景〉(八首: 北窓清風, 南溪明月, 絕壁孤松, 層岩疎竹, 石門瀑布, 仙洞牧笛, 墨村晚鷄, 龍頭朝雲) 등 32首이고,

七言絶句로는 〈幽興〉〈尋春〉〈知命〉〈生辰逢寒食〉〈次擬共隣韻〉〈贈順天趙基裕〉〈觀松〉〈賀宗人在彬顯恩〉〈草堂搬移後古墟桃〉〈因修譜事累月帶因見放次金友聖璣贈韻〉〈山溪〉〈立春〉〈次魏友元益韻〉〈謹和任公永源觀梅有感韻〉 등 14首이며,

五言律詩로는 〈咏懷〉〈次金友聖隣韻〉〈謝故人〉〈訪隱士不遇〉〈以校任辭免之意謹呈本伴閑侯致政〉〈閑侯還朝惜拜別〉〈過海倉日閑侯與碧察船游川獵同參而吟〉〈買閒居〉〈送酒于德堤族兄〉〈溪山有期不至〉〈指說幽居〉〈幽居自卜〉〈次魏友元

註 2. 李商啓의 父親인 李宗巖의 文集.

3. 이 謄本(手寫本)은 縱 21cm 橫 20cm의 거의 正四角形의 크기로, 表紙도 없고 前面엔 그 前에 製本했던 붉은 符號가 는 실구멍과, 옆으로 접쳐 날린 실 자국이 남아 있고, 後面(背張)은 은張이 아닌 半張(片面)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古本의 分冊임은 疑心할 餘地가 無는데, 前記〈草堂曲全〉에 比하여 古綴字가 제대로 維持되고 있다.

益乘暮來到〉〈陽川精舍魏元益道及〉〈時閑侯爲晉州牧故往見〉〈閑侯設講于淵谷爲我設樂于壽命堂〉〈次永錫齋韻〉〈日林寺九老會賀下友携魚酒來〉〈陋會寧面諸益〉〈宗人在彬加禮禮席〉〈生辰感吟〉〈赴吊順天再從兄靈位有感〉 등 22首.

七言律詩로는 〈讀藝我詩有感〉〈草堂幽居〉〈雜詩〉〈和從弟士衡韻〉〈次臥龍齋韻〉〈順天趙基裕山莊韻〉〈挽溪西白公鎮恒〉〈日林寺九老會〉〈與諸益遊寶林寺次寺韻〉 등 9首이다.

여기에 止止齋 등 9인이 連作한 〈九老會聯句〉一首를 合하면 자작 漢詩는 78首가 된다.

다음에는 前記한 〈草堂八景〉이라는 漢詩에, 睡軒 李尙曄外 24인이 각각 〈附次韻〉한 것이 있고, 또 止止齋 자신(自作)의 〈止止齋序〉와 〈栽花說〉이 있는데 〈止止齋序〉 末尾에는 자작한 五言律詩 1首가 附記되어 있어, 여기의 五律까지 合하면 자작 漢詩는 도합 79首가 되는 셈이다.

그 다음에 本고의 주대상이 되는 〈歌曲〉 二篇(草堂曲과 人日歌)이 있으며, 다시 〈止止齋序〉에 부기한 五言律詩에, 默窩 李永祿, 陽川 魏道及, 晚谷 金夢權, 鶴川 金淑, 鄭基說, 卞瓌 等 6인이 各各 次韻한 五律의 〈附止止齋次韻〉 首가 있다.

(2) 卷之二는 〈附錄〉으로서 睡軒 李尙曄 이하 各 5인의 〈止止齋序〉와 魏道任 이하 61인의 〈挽章〉 魏道問 이하 5인의 〈誄辭〉 鄭奎東 이하 8인의 〈祭文〉 그리고 甲戌(西紀 1814年) 2월에 文啓福 이하 38인의 兪명으로 된 〈鄉薦狀〉과 同年(甲戌) 9월에 魏道純 以下 30인의 兪명으로 된 〈鄉薦狀〉이 있고, 다음엔 兪대불기안 魏守邦 이하 37인의 兪명으로 된 〈上巡相狀〉과 丙子(西紀 1816年) 4월에 白宗兌 이하 30인의 兪명으로 된 〈卜繡衣狀〉 乙丑(西紀 1805年) 8월에 魏道任 이하 27인의 兪명으로 된 〈卜繡衣狀〉이 있으며, 그 다음에 永曆 241年丁亥(西紀 1887年) 春 2월에 三從孫 信錫이 謹記한 〈行狀〉과 同年(1887年) 9月 重陽日에 幸州 奇宇萬이 撰한 〈墓誌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末尾에 永曆 244年庚寅(西紀 1890年) 蜡月(선달) 5일에 顯興後人 閔泳殷의 跋과 文集(止止齋遺稿) 간행시, 곧 檀紀4291年戊戌(西紀 1958年) 9月 重陽日에 五代孫 萬欽이 謹識한 附記가 있다.

그러나, 〈行狀〉과 〈墓誌銘〉의 기술연대를 보아도 그렇거니와 특히 閔泳殷의 跋에

「邵城 李昌浩 袖其曾王考 遺稿而視之……但恨遺文散逸 斷編歌曲 不足以形萬一而世德之蟬聯 雲仍之蕃衍 備載於記文 累陳其梗概云爾」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70여년전에 이미 李商啓의 曾孫인 昌浩에 依하여 止止齋의 遺稿 수집과 아울러 문집 간행이 시도되었음이 분명하나, 여의치 못하다가 최근(西紀 1958年)에 와서야 그의 5代孫 萬欽에 의하여 비로소 간

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止止齋의 6代孫 永淑氏도 필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惟我六代祖考 商啓는 僻在海隅南端 長興郡蒜山面接亭里 峨洋洞 山中에 搆草堂四間하야 備備風雨하고 薄田數畝로 玩心於義理之微하고 放意於塵垢之外하야 故作草堂曲人日歌하야 以資鬻月清風咏而歸之하고 寧歿其世而不悔也 而于今百三十年前事也라 其後 雲仍之困歿로 所著厄于回祿하고 重經虫鼠風露之敗하야 詩不滿百編에 有草堂曲人日歌八景韻 並和章十餘軸이 在筥에 曾孫 昌浩는 痛切遺文散逸하여 收輯結篇하고 未遂刊하고 寧歿하시니 吾門之不幸을 可嘆痛切耳라 그후 五代孫 萬欽은 此를 통탄하여 大學未遂之役하야 당시 九老會의 英孫九家에 配秩하고 各處 儒林家에 배부하야 未遂之痛嘆을 불식하였읍니다.」

이로써 문집 간행의 경위를 대략으로 알 수 있는 셈이다.

### 三. 作 者 攷

작자 李商啓는 仁川李氏요 諱는 商啓 字는 君沃이며, 止止齋 또는 觀松이라 號하였다. 그의 시조는 高麗朝 許謙에서 비롯하였고, 시조公의 19世孫 貴秀에 이르러 그의 아우 貴慶이 長興의 슈이 되면서부터 자손들이 長興에 살게 되었으며, 止止齋 李商啓는 시조公의 31世孫이다.

李商啓의 생존 연대는 그의 〈行狀〉 및 〈墓誌銘〉에

「考諱宗震……訛南平文氏 公生于英廟戊寅 卒于純廟壬午 七月 二日 云云」

으로 되어 있으니, 곧 西紀1758年(戊寅)에 출생하여 西紀1822年(壬午)까지(65歲) 생존하였으며, 한편 永曆241年은 西紀1887年이니 〈行狀〉 및 〈墓誌銘〉은 그의 사후 꼭 65年만에 이루어졌고, 「止止齋遺稿」의 정식 간행은 그의 사후 137年(西紀 1958年)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연보가 없어 그의 유년 및 청년 장년 시절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알 길이 없으나, 다만 문집에 수록된 〈祭文〉 〈鄉薦狀〉 〈卜繡衣狀〉 등에 의하여 살펴 보면, 먼저 從兄 元啓의 〈祭文〉에

「君之生世 資稟既異 自少有長老之氣像 喜怒無形於顏色 漸長侍側 必有柔色婉容 養親 侍奉凡節 盡以子職 偵修厥德 無曠無虧 遠邇聞見 如載朝陽 不致不言 而使人忘私 聞人有喪 奔慰如渴 遇人飢乏 分賑乃裕 克己好義 不論親疎 倘有不善言則 震形於色 人有德言則 喜動於顏 誠孝未半 遽遭親喪」

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또 甲戌二月에 올린 〈鄉薦狀〉에

「商啓自幼少時 性度出天 儀範超人 喜怒不形於色 談諠絕口於言 儼一成德君子

矣 及至成童之日 學究聖賢用心之處 謹明古今忠孝之節 而不以科場章句之工 爲主業焉 修身齊家 舉皆禮法 養生送死 一以誠敬 而懷橘之思 泣竹之意 既學於親在之後 攀栢之號 咏蓼之痛 尤切於親沒之後 色志之養 聖訓同揆 孺慕之誠 古人一轍」

이라는 기록과, 丙子四月에 順天에서 올린 〈卜繡衣狀〉에

「至于某(筆者註·商啓)自幼時 性度出天 儀範超人 儼一成德君子矣 及至成童 即廢舉業 專心聖學 家雖貧屢 而養志凡節 無一不用其誠 愉容悅色 昏定晨省 一以內則爲法」

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보면, 작자 李商啓는 유소시부터 性도와 儀範이 남달리 뛰어나고, 喜怒의 정을 안색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허튼 소리를 입에 담지 않는 君子的 資質을 지녔던 모양이고, 또 成童이 되어서는 聖賢의 본을 받는 儒道的 학문에 진심한 모양이나 거업에는 별로 뜻을 두지 않은 듯하며, 使人忘私하여 남의 어려운 일은 자기 일처럼 돌보고, 오로지 義와 德을 좇아 살고자 한 듯하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의 효성은 유달리 敦篤한 것이었음도 十分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시세의 흐름에 전연 逆流하지는 않았는듯 그의 作인 草堂曲 중에

「하날이 사람낼지 職業이 다잇시되  
昏愚호 이人生은 제身命 저물나서  
妄候된 어린마암 富貴을 求호라고  
天寒白屋 曠덕門에 窮且益堅 큰쓰스로  
달올애 글음익고 빛뒤에 맞슬가니  
孔子曰 孟子曰에 歲月이 절노가고  
上坪田 下坪田에 人力虛費 뿐이로다  
富貴는 아니오고 年少만 카단말가  
形從에 어든기시 白髮兩鬢 뿐이로다」

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도 한 때는 소위 「書中自有千鍾祿」을 신봉하고, 성실 면학하여 입신출세해신 부귀와 영화를 누려 보고자한 적이 전연 없었던 바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李商啓의 父인 隱亭 李宗震의 「隱亭集」을 보면, 宗震은 英祖 乙酉年(西紀 1729年)에 나서 崇禎三丙寅(註·純祖丙寅) 二月初四日 곧 西紀1806년에 78歲를 一期로 卒했으며, 또 그는 「居餼三十載」에도 「不繼娶」<sup>(4)</sup>하였는데, 그의 室人 南平文氏는 「生後公三歲 卒先公三十三年」<sup>(5)</sup>이라 하였으니, 文氏는 곧 西

註 4. 「隱亭集」中 李宗震의 〈墓誌銘〉

5. 上 同

紀1732년에 나서 西紀1773년에卒한 셈이다. 그러므로 商啓는 西紀1758년에 출생하여 16歲時에 그의 母親과 사별하고, 父親인 隱亭과는 그의 49歲時요, 卅하기 16年前에 사별한 셈이 된다.

이로 보아 商啓는, 16歲의 어린 나이에, 그의 아래로 칠없는 五男妹를 두고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많은 충격을 받은 듯하고, 어찌던 生에 대한 허무감 乃至는 인생무상을 통감했을 법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일찌기 부인을 여의고 외로히 鰥居하는 父親을 받들고, 어린 男妹들도 보살펴야 했을 것이며, 더구나 嗣孫으로서 家門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한때 품었던 舉業에의 뜻을 버리고 存心聖學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홀로 계신 父親에 대한 商啓의 효성은 지극하여

「家難負旣 而養志凡節 無一不用其誠 儉容樹色 昏定晨省 一以內則爲法」<sup>(6)</sup>

「修身齊家 舉皆禮法 養生送死 一以誠敬 而懷橘之思 泣竹之意 旣攀於親在之時」<sup>(7)</sup>

하였으며, 본시 효성은 그의 가문에 새습되어,

「其孝則成一家風動四隣」<sup>(8)</sup>

하여 鄉薦 道薦이 非一非再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효성은 亡母에 대한 回憶의 情으로하여 더욱했던 모양이니

「孺慕之誠 古人一轍 而朝夕省墓 不擇雨雪 拜伏處草不生焉 來往之路 樵童牧豎 爲之刈草除道」<sup>(9)</sup>

라는 記錄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다.

또한 부친 沒後에는 그의 효성이 더욱더 高調된 듯하다.

「及夫遭難 送終之具 無不稱意 而攀號之際 毀瘠骨立 三年之內 不離几筵 一遵朱夫子家禮 而服闋後 結廬楸下 雖風朝兩夕 不廢展省 左右圖書 樂而忘飢 拔足芬華之域 潛心聖理之工 若將終身於林下 猶歎美哉 自七世五世 至其祖若考 而以孝傳家 有此肖孫某(筆者註·商啓) 此所謂繼世之孝也 某(筆者註·商啓) 色養於親在之時 而供旨之道 愛日之誠 與陸黃芽輩 無間焉 則此所謂養志之孝也 居喪餘哀 尤切於親沒之後 而待墓致敬 一如事生 年今六十 而孺慕不衰 此所謂追慕之孝也」<sup>(10)</sup>

에서도 그렇거니와 또한 그와 관련된

「特異之事」를 보더라도,

註 6. 丙子四月의 〈卜櫛衣狀〉(止齋遺稿)

7. 甲戌二月의 〈鄉薦狀〉(上 同)

8. 乙丑八月의 〈卜櫛衣狀〉(上 同)

9. 甲戌二月의 〈鄉薦狀〉(上 同)

10. 丙子四月의 〈卜櫛衣狀〉(上 同)

「此外 又有特異之事焉 其親生時 每晨謁家廟 而有鳴鳥報候 不失其時 至某(筆者註·商啓)之身 一如先考謁廟之禮 而是鳥也 又鳴於其處 且其堂叔慕省堂復和 以孝行屢薦 而沒後 鄉人妥靈於影堂 自朝家特命旌閭 在今順天之地矣 慕省堂撥几筵之日 某(筆者註·商啓)躬往參祀 歸路有一兒狗 隨後而來 審視則乃慕省堂所畜之狗雛 而其母狗 則不食 自斃於慕省堂棄世之日矣 又於親塋植松之後 他山則蝗盡食松 而其蠶也 不敢入於其處 墓下所居之處 山林而深暗 每多處患 而一自結廬之後 虎自避去 墓前拜伏之處 草不生焉 當在家省墓之時 村人爲之除草往來之路 噫其盛矣 語其孝感之多 則禽鳥微物也 而報二世謁廟之候 狗兒無知也 而跟隨於百里之遠 松蝗頑虫也 而不犯親塋之植 虎豹猛獸也 而避去廬墓之所 春草一不生拜伏之處 則展謁之勤可知也 村人爲除省楸之路 則誠孝之感可見也 人之感惟或可矣 之鳥也 之狗也 之虎也 之草也 無不感應於其孝」<sup>(11)</sup>

라고 한 바와같이, 이른바 그의 追慕之孝誠은 無不感應할 만큼 至極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純祖 丙寅年(1806年)에 親喪을 當한 二年後인 戊辰年(1808年)에는 先塋之邊에 草堂을 짓고 「科擧之外 知有爲己之學」하여 이른바 山林學派의 意趣를 떠나 「琴書自娛」한 듯하니

「歲維戊辰 正月二十日 別構一草屋 於佛巒山東麓 巖洋洞幽寂處 乃是先祖齊廬之上 先親窆葬之右 青山四回 石門深鎖 兩溪合襟 而爭流爲瀑布 層岩列掌而並立 作奇臺 風月時至 浪吟之詩料自足 花鳥相親 幽居之芳隣不孤 心獨喜殘年正得止接之所也」<sup>(12)</sup>

라고 한 바로써 알 수 있거니와, 花鳥相親하는 그윽한 自然의 품에 안겨 「浪吟之詩料가 自足」한 草堂 四面의 風致를 즐기며, 비록

「家清貧 家屋不足庇風雨 薄田不足資飽粥」<sup>(13)</sup>

할 만큼 가난해도 「不近權要하고 特立獨行」하여 翠竹을 찍하는 君子다운 선비의 生活로써 餘生을 보낸 듯하다.

「公早有遯世之志 即先塋邊 深谷中 構草堂四間 僅庇風雨 薄田數畝 可備飽粥 壁掛一張琴 案置數卷書 園植躑躅薔薇 庭列碧梧翠竹」<sup>(14)</sup>

「其不近權要 特立獨行 有如此者 公可謂篤行君子矣 生於南海寂寞之鄉 科擧之外 知有爲己之學 能自樹立 早謝名道 遯跡林泉 寧沒其世而不悔也」<sup>(15)</sup>

그리고 이와같이 자연을 즐기며, 자연의 理法 거기에서 덕행과 학문의 도리

註 11. 〈卜繡衣狀〉〈鄉薦狀〉〈上巡相狀〉等

12. 〈止止齋序〉

13. 李商啓의 〈墓誌銘〉

14. " , 〈行狀〉

15. " 〈行狀〉

를求하고자 하였음은 그의 自作 漢詩에서도 十分 감득할 수 있다.

우선 그가 지은 漢詩 79首中 자연을 읊었거나 자연과 깊이 유관한 自然歌類에 속하는 것이 33首이며, 이에 준하는 것 9首까지를 합하면 42首나 되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그 한 둘을 예거해 보면.

山中雪夜

落月添光白 鷺禽刷翼寒 柴門無犬吠 料得過人難 〈五絕〉

山溪

絕頂窮谷搥形勝 俯視秋煙點點青 何日成得物外志 一山茅屋一溪亭 〈七絕〉

指說幽居

我屋不難訪 青山秀麗中

清溪東入海 白石北防風

疎竹依岩綠 古桃隔岸紅

雲深若迷道 林下問樵翁 〈五律〉

草堂幽居

莫知所止而來止 野服山市兼草履

花落花開自盛衰 雲來雲去誰是非

浪吟風月谷林幽 閒對琴書溪竹美

長嘯短歌送夕陽 綉蟹黃鳥親相瀆 〈七律〉

이와 같거니와, 또한 그의 草堂生活과 아울러 歌辭「草堂曲」을 理解함에 參考가 될 뿐아니라, 그의 親知 25人의 次韻이 있는 「草堂八景」을 보면 다음과 같다.

草堂八景 北窓清風

山巾着更落 清夢醉還新 笑彼朱文下 若炎趨走人

南溪明月

影落溪聲白 灘喧月色鳴 澄清相得地 山鳥底心鷺

絕壁孤松

危地托根固 蒼蒼不畏風 客來愁倚立 遙望白雲中

層岩疎竹

蕭疎幾叢竹 掩映一茅家 石逕時行看 山童掃落花

石門瀑布

石臼舂玉白 溪心洗水清 坐看因眠倒 幽夢半水聲

仙洞牧笛

溪山濃欲滴 梅柳自爭開 始謂簫仙至 終看牧子來

墨村曉鷄

山繞藏茅屋 谷通聞野鷄 數更三又四 羶月半窓西

## 龍頭朝雲

從風飛石角 收雨度蓮塘 都是幽人興 尋常楚夢香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所著厄于回錄 重經蟲鼠風露之敗 詩不滿百篇 有草堂曲人日歌八景韻 並和章十餘軸在笥」

라고 하였으니 遺文散逸로 말미암아 그의 시작 전모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니 或如 타문헌에서라도 그의 작품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四. 作品(歌辭)攷

李商啓의 歌辭 작품인 草堂曲과 人日歌가 수록된 문헌 내지 歌帖은 현재 4種이 전하고 있는데, 필자가 당초에 본 것은 진술한「止齋遺稿」이라는 文集에 收錄된 것이나, 이 文集은 최근 활자로 간행할 당시 2號活字엔 俗稱 아래아자라고 하는「·」母音を 사용한 활자가 없는 관계로, 모두「·」母音 대신 現행「ㅏ」母音으로 바꾸었으며, 여타의 古綴字도 現행 綴字法으로 고친 것이 많아 서 고품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다음엔 문집의 대본이 될 듯한 최근의 필사본인「草堂曲全」이라는 歌帖에 수록된 것도 역시 전자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草堂曲과 人日歌만을 分冊한 歌帖(이것도 역시 중도 筆寫本)에는 철자의 고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全南 長興郡 冠山面 傍村里에서 발견된 歌帖(假稱 三足堂歌帖)<sup>16)</sup>에도「草堂歌·人日歌, 李草堂作」이라 하여 李商啓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歌帖은 母論 綴字의 古形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草堂曲全」과 그 원본의 分冊인 듯한 歌帖의 내용과는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나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제 兩歌辭의 제작연대와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각각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製作年代

草堂曲과 人日歌가 모두 제작연대에 관하여는 어디에나 확실한 연대 기술은

註 16. 假稱「三足堂歌帖」은 全南 長興郡 冠山面 傍村里 魏氏宗家에서 發見된 歌帖인데, 縱이 17cm 橫이 20.5cm의 크기에 總 37張 74面(表紙除外)으로, 亦是 韓紙에 寸單體 二段組로 된 아주 낡은(오래 된) 筆寫本이나, 標題가 없이 우선 假稱「三足堂歌帖」이라 命名하여 보았다. 이 歌帖에 실린 作品은 三足堂 魏世寶의 〈金塘別曲〉을 爲始하여 存貯 魏伯珪의 〈自悔歌〉 및 〈農歌〉(이 農家는 其實 時調 9首에 對한 名稱이다.) 李草堂(商啓)의 〈草堂歌(曲)〉 및 〈人日歌〉, 朴履和의 〈萬古歌〉, 淸沙 盧明善의 〈天風歌〉, 作者未詳의 〈합강정선뉴가(合江亭船遊歌)〉, 그리고 〈勸學歌〉(他卷엔 이 勸學歌가 魏伯珪의 作으로 되어 있음)의 차례로 모두 歌辭 8篇 時調 9首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朴履和의 〈萬古歌〉外에는 그 內容이 모두 未發表 歌辭 및 時調들이다.

없고, 다만 前揭한 바와 같이 「止止齋遺稿」中, 작자 자신의 「止止齋序」에  
「歲維戊辰 正月二十日 別構一草堂 於佛嶺山南麓 娥洋洞幽寂處……」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草堂曲은 최초의 草堂을 構築한 뒤에 제작된 것임에는  
틀림없을 터이니, 넓게 보아 純祖八年戊辰(西紀 1808年) 正月二十日 이후 작자  
卒年인 純祖二十二年壬午(西紀 1822年) 사이에 지은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草堂曲의 歌詞中

「어와 虛事로다 世事營爲 虛事로다,  
富貴는 아니오고 年少만 가단말가,  
形役에 어든거시 白髮兩鬢 썩이로다,  
知命年이 되온後에 닉身命 너알리라.」

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자의 나이 知命年(50歲)이 되는 해에 지은  
듯도 한데, 草堂을 構築한 西紀1808年(純祖八年)은 작자의 나이 51歲(滿50歲)  
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推測컨데 50歲되는 1807년에 草堂을 起工하여 1808年  
正月 20일에 竣工한 後 萬化方錫하는 그해 陰曆 3,4月頃 草堂에 노닐면서 이  
른바 「浪吟之詩料가 自足」한 草堂의 풍경에 감흥하여 제작한 것이 아닌가 여  
겨진다. 다시 말해서 草堂曲 歌詞中에

「石路에 翫트걸너 數層花階 읊노마니  
절노핀곳 杜鵑花요 심어핀곳 躑躅薔薇  
다핀가지 덜핀나무 짐을들너 짐짜사나」

라는 구절로 보아, 때는 음력3,4일이요, 제작연대는 草堂을 竣工하여 感激된 바  
로그 해인 1808年(純祖八年戊辰)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人日歌만은 文集의 기록이나 歌詞中에도 그 제작연대를 전혀 추측해  
볼 근거조차 없는데, 다만 歌辭 작품의 내용적 성격(道德歌類)이라든가, 작자  
자신의 草堂 起居의 사실로써 유추하여 작자의 만년기, 곧 草堂曲과 거의 같은  
무렵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될 따름이다.

## (2) 內 容

### ① 草 堂 曲

草堂曲은 그 제목 아래

「余素有於園林泉石之樂 每入佳處 玩心於義理之微 放意於塵垢之外 故作此歌  
以資霽月清風詠而歸之調云」

이라는 작자의 간단한 解題가 添記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墓誌銘〉에서

「草堂曲 見翁不囿於世塵 人日歌 見翁篤厚於人倫」

이라고 말한 바와같이 스스로 世塵을 벗어나 林泉의 樂을 營爲코자 제작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草堂曲의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 6段으로 나눌 수 있다.

第 1段 醉起言志(序詞)

「草堂 느진날에 집피든잠 늘너서너  
門앞 버들위에 서소리 봄이로다  
百花酒 두세잔에 醉起言志 호오리라」

와 같이 序詞는 草堂앞 버들위에 노니는 세소리를 듣고 문득 春景에 感興하여 醉起言志 하겠다는 심회의 서술이다.

第 2段 學而時習

「하날이 사람낸지 職業이 다잇사되——(中略)——  
知命년이 되온後에 너身命 니알리라」

(以下 各段의 歌辭 內容은 附錄 歌辭 全文을 要參照)

第 2段은 昏愚한 마음에서 부귀를 구하려고 窮且益堅 큰 뜻으로 孔孟의 글을 읽으며 學而時習하였으나 世事營爲는 虛事가 되고 白髮兩鬢만 늘어감을 哀嘆하고 있다.

第 3段 草堂風景

「碧桃紅杏 繁華地에 風情이 절노업고, ——(中略)——  
淳朴호것 옛制度라 拙호거시 더욱호타」

第 3段은 부귀 영화에의 뜻을 버리고 峨洋洞 靜散地에 草堂 數間을 지어내니 人力과 天作이 調和하여 淳朴하고 조졸한 자연 풍경이 더욱 아름답고 좋다는 것.

第 4段 草堂清遊

「옛神仙 노든골을 니웃호야 것턱두고, ——(中略)——  
烟靄에 짓피든病 獨樂으로 다났것다」

第 4段은 本歌의 핵심 부분으로, 아름다운 자연(草堂)의 연분이 俗慮를 떨리하여 심신이 灑落하며, 石路 花階를 거니는 사이, 어느듯 武陵桃園의 別乾坤을 聯想한다. 그러다간 또 구름을 비껴 앉아 絕壁 石上의 靑竹 老松을 바라보기도 하고, 商山翁의 바둑, 王子晉의 洞簫와 流水曲의 音律을 想起하며 山水의 景을 自樂한다.

第 5段 月下仙遊

「달아리 술마시니 酒中謫仙 이아니며, ——(中略)——  
赤松에 桂樹비여 花下煉丹 흠이로다.」

第 5段은, 實은 第4段의 詩想이 계속 延長된 것이나, 作者의 仙境을 歛慕하는 사상이 가일층하는 비목이라서, 따로 月下仙遊라고 이름하여 보았다. 卽 自身을 「月下獨酌」하는 李太白과 五柳先生 陶淵明에 비기면서 「學文」하러 오는 門下生을 月宮으로 向하는 靑衣童子로 聯想하고 「閑暇한 저老人」(作者自身)을

月下烹茶하고 花下煉丹하는 瀛洲山の 늙은 神仙으로 노래하고 있다.

第 6段 安貧樂道(結詞)

「도르여 生覺호니 人間淸福 너야만타, ——(中略)——

아허야 싯즌 쯤노아라 醉코놀사 호노다.」

第 6段은 전체 시상의 종결로서, 아름다운 자연 江山이 不用一錢 절로 있는데, 功名富貴는 浮雲이요 鍾鼎玉帛이 다 塵埃이니, 天地無窮한 이 江山은 三公과도 不換하며, 傳子傳孫하고 安貧樂道할 것을 結詞로 하고 있다.

㉠ 人日歌

人日歌는 草堂曲에서와 같은 해제는 없으나, 〈序〉를 위시하여 〈行狀〉이나 〈墓誌銘〉 기타에서 한결같이

「人日曲(또는 人日歌) 可人人誦習傳寫來爲兒輩觀」

「又作人日歌 以人字之義 敷衍五倫 平易明白 親切的當 使樵牧聽之 莫不感歎」  
〈行狀〉

이라 評言하고, 元月 初七日(人日)夜에 人日會를 열고 많은 親族 親故들이 모여 놀며 人日歌를 酬唱케 하였다 한다.

그리고 人日歌는 「見翁篤厚於人倫」이라고 한 바와 같이, 一言以蔽之하면 作者 내심의 人倫 道德의 사상을 歌辭라는 형식에 없이 述懷한 것이라 하겠는데 人日歌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8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第 1段 人日讚美(序詞)

「우리 묘와놀서 人日에 묘와놀서, ——(中略)——

스름날 서로모와 스름될닐 의논호서.」

(以下 各段의 歌辭 內容은 附錄 歌辭 全文을 要參照)

第 1段은, 모든 名日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人日」날에 서로 모여서 사립될 일 의논하자는 序詞이다.

第 2段 和親敦睦

「一父母 우리諸族 百代라도 至親이라, ——(中略)——

聖인이 날속일가 사람마당 堯舜될리.」

第 2段은 一家 諸族이 敦睦으로 崇尚하여 勸善懲惡하며 行實을 바로 하면 天地와도 짝을 하고, 제마다 堯舜같이 되리라는 것.

第 3段 道心警覺

「공변든 호날임이 賢愚을 제금낼가, ——(中略)——

天竺으로 못된사람 自作으로 그릇치너.」

第 3段은 인간이란 본시 賢愚의 구별없이 다 같은 性善을 타고나는 것이지만 物欲과 험기가 사람을 그릇치는 法이니, 物욕을 버리고 성내기를 참으며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릇치고 망신할 따름이라는 훈계와 道心警覺의 배

용이다.

第 4段 堯舜欽仰

「有餘흥이 貴호닛가 艱難이 賤호소야, ——〈中略〉——  
大聖이 稱贊호고 千秋에 欽仰호다.」

第 4段은 堯舜과 顔子氏의 故事를 예거하여 어떠한 陋巷 蠻貌에서라도 스스로 사람됨이 誠實하고 忠直하면 저들과 같이 누구나 萬乘位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欽仰의 內容.

第 5段 千古貽笑

「金谷 조흔터에 石崇의 有餘보소, ——〈中略〉——  
善事를 求호라면 못호리 업슬서라.」

第 5段은 中國의 豪商인 石崇의 故事를 例擧하여, 一場春夢인 부귀를 구하려다가 千古貽笑의 害를 입지 말고, 오로지 善事를 求하기에 힘쓰자는 것.

第 6段 五倫解義

「聖人이 이 뜻아라 五倫으로 가라치니,  
(第一에 父子有親 親字 뜻 至重호다,) ——〈中略〉——  
三千威儀 三百禮에 이다섯시 綱領이라.」

第 6段은 이 노래의 핵심 부분으로 앞서 예거한 〈行狀〉에서 「人日歌 以人字之義 敷衍五倫 平易明白 親切的當」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①父子有親 ②君臣有義 ③夫婦有別 ④長幼有序 ⑤朋友有信의 차례로, 하나 하나 그 뜻을 引用 敷衍하여 설명하고 있다.

第 7段 博覽習訓

「諸子百家 通史類은 博覽으로 보아두고, ——〈中略〉——  
너름에 病이 업고 남안이 미어호리.」

第 7段은 먼저 聖訓을 좇아 修身하고 나아가신 家訓을 본받아 謹身 修行하자는 것.

第 8段 人日醉興

「西塢도 이 뜻알아 이모음 設施호니, ——〈中略〉——  
두이라 날마다 人日이면 사람될가 호노라.」

第 8段은 結詞로서, 人日에 여러 親族 親故들이 모여 敦睦하고 興겨올게 노는 場面을 노래하고 있다.

(3) 形 式

작품의 記寫 형식은 최근 발간의 문집 이외의 三種의 歌帖에는, 다른 歌辭의 筆寫本이 대개 그러하듯, 兩歌 모두 句讀체로 되어 있다.

다음에 字數律 統計는 作者 宗家의 家藏本(草堂曲·人日歌년의 分册本)을 토대

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草堂曲

草堂曲은 1詩行 4音步格인 對句 한쪽을 1句로 計算하여 總 69句(片句一有) 이나, 다시 2音步格으로 計算하면 139句로 된 歌辭인데 이를 通稱 3·4 乃至 4·4調 中心으로 字數律을 集計하여 보면

4·4調.....67句	3·6 (3·2·4)調..... 2句
3·4調.....63句	3·5調..... 1句
2·4調..... 5句	4·3調..... 1句

(計 139句)

와 같으니, 이로써 보아 草堂曲은 3·4調 乃至는 4·4調가 基本 字數律로서 전 데 다수이다. 국문학사상 후기 平民歌辭의 基本 字數律인 4·4調가 若干 勝한 면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本歌辭에 3·6 (3·2·4)調가 2句, 4·3調가 1句 있는 것은, 歌辭 末尾 에 흔히 통용되는 이른바 落句가 本歌辭(草堂曲)에는 二重으로 거듭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그 末尾를 提示하면,

「두어라 傳子傳孫하야 肯構肯堂하면 永錫其類 하리로다,

아허야 웃조노아라 醉코놀까 하노라.」

가 그것이다.

㉡ 人日歌

人日歌는 1詩行 4音步格으로 總 95句(2音步格으로 計算하면 190句)로 되어 있는데, 亦是 3·4 乃至 4·4調 中心의 字數律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의 數字는 他歌帖의 字數律 表示).

3·4調..... 111句	4·3調..... 1句
4·4調.....71句	5·4調 〈4·4調〉..... 1句
2·4調..... 4句	3·7調 (3·3·4調)..... 1句
3·3調 〈3·4調〉..... 1句	(計 190句)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동일작가의 작품이면서도 草堂 曲과는 달리, 국문학사상 전기 兩班歌辭의 基本字數律인 3·4調가 越等하게 優勢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人日歌에도 3·7(3·3·4)調와 4·3調가 各 1句式 있는 것은 亦是 本歌 辭에도 結尾에

「두어라 날마당 人日이면 사람될가 하노라.」

와 같은 落句가 있기 때문이다.

五. 結 言

以上으로써 볼 때, 止止齋 李商啓의 家門은 別로 顯達하지 못한 편이었고,

李商啓 自身도 理由야 如何든 平生 官界와는 別리 草野에 묻혀 살았으며, 더구나 「家淸貧 室屋不足 庇風雨 薄田不足資飽粥」할 程度와 가난한 野人으로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의 後孫들에 의한 文集의 간행도 늦어진 듯하며, 이렇듯 문집 간행의 불여의로 인하여 그의 歌辭作品도 여태껏 세상에 소개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효성이 지극하고 성격이 온화한 근자적 인품의 소유자였고, 만년 草堂에 起居하면서는 安貧樂道하는 자연의 정취를 한껏 맛보았으며, 그러한 山林處士의 生活 속에서도 언제나 和親敦睦을 希求하는 人倫 도덕적인 생활 관념에 젖어 산 布衣의 선비였으니, 결국 그는 專心聖學하는 도덕적 관념에서 人日歌를 짓게 되었고, 琴書自娛하는 隱逸의 내지는 帶帶적 관념에서 叙景의인 草堂曲을 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草堂曲, 人日歌 全文)

(여기 對校상야 紹介하는 A本·B本·C本の A는 李商啓宗家의 家藏本(分冊本), B는 「假稱 三足堂歌帖」, C는 「草堂曲全」이라는 歌帖을 指稱한( )안은 各歌帖에 後人이 加筆한 것.)

1. 草 堂 曲

止止齋 李 商 啓 作

〈A本〉

草堂 느진말애  
 집피든잠 늘너져니  
 門안 머물우애  
 시소릭 봄이로나  
 百花酒 두세잔애  
 醉起冒志 호오리라  
 하늘이 사람낼져  
 職業이 다잇서되  
 昏愚호 이人生은  
 제身命 저물나서  
 衰候된 어린마암  
 富貴은 求하라고  
 天寒白屋 쪽터門애  
 窮且益堅 큰뜻스노

〈B本〉

草堂 느진말애  
 집피든잠 늘너져니  
 문안 빌들우의  
 시달리 봄니노다  
 百花酒 두세잔애  
 醉起冒志 하오니라  
 하늘이 사람낼제  
 직인이 다이사되  
 昏愚호 저人生은  
 제身命 저물나서  
 망영든 어린마암  
 富貴乙 구하야고  
 天寒白屋 숙터門애  
 窮且益堅 큰뜻스노

## 〈A本〉

달을에 글을익고  
 빛뒤에 빛슬가니  
 孔子曰 孟子曰에  
 歲月이 절노가고  
 上坪田 下坪田에  
 人力虛費 쓴이로다  
 이의 虛事로다  
 世事營爲 虛事로다  
 富貴는 아니오고  
 年少란 가단말가  
 形役에 어든거시  
 白髮兩鬢 쓴이로다  
 知命年이 되온後에  
 尼身命 니알리라  
 碧桃紅杏 繁華地에  
 風情이 절노업고  
 綠水青山 짐곳골이  
 舊夢이 多情호니  
 富貴는 舊主人인고  
 溪山은 니차지라  
 眠洋洞 靜故地에  
 舊齋號 아라두고  
 白雲을 늙피쓸어  
 草堂數間 지어너니  
 楸下에 先隴이오  
 物外에 新基로다  
 四面青山 一石門을  
 天作으로 開局호고  
 두시에 두문물은  
 人力으로 짓단말가  
 위로더썸 短簾(골)을  
 藤蘿도 열거매니  
 淳朴호겄 옛되度라  
 拙호거시 더욱뜻다

## 〈B本〉

달알이 글얼익고  
 빛뒤에 빛설갈제  
 孔子曰 孟子曰  
 歲月이 절로가고  
 上坪田 下坪田에  
 人역희비 쓴이로다  
 於我 虛事로다  
 故事營爲 虛事로다  
 富貴는 안니오고  
 年歲란 가단말가  
 形役에 어든거시  
 白髮兩鬢 쓴이로다  
 知命年이 되온후에  
 尼身命 니알이다  
 碧桃紅櫻 華繁地  
 風情은 절로가고  
 綠水青山 짐곳골이  
 歸夢이 다정호되  
 富貴는 舊主人고  
 溪山은 내차지라  
 眠洋洞 靜故地에  
 舊齋號乙 알히두고  
 白雲乙 로피쓸어  
 草堂數間 지어내니  
 楸下에 先隴이오  
 物外에 新基로다  
 四面青山 一石門은  
 天作으로 開局호고  
 두시에 들은물은  
 人力으로 짓다말가  
 러로더썸 短簾호선  
 藤蘿로 열거매이  
 淳淳호 옛되度은  
 拙호거시 더욱조다

〈A本〉

옛神仙 노든복을  
 니웃하야 짓터두고  
 悟道時 뜻에뵈은  
 主山으로 俯臨하니  
 眞緣이 엇도던가  
 俗慮도 절로엷고  
 석업논 두귀웃을  
 石灘에 다시씻고  
 濯纓臺 흐른물이  
 洗心潭 도라드니  
 風臺에 바람소리  
 心神이 灑落하고  
 月台(에) 발근달은  
 달근意味 一般이라  
 石路에 흘은물은  
 ((C本) 徘徊하야)  
 數層花階 울노마니  
 절노핀꽃 杜鵑花오  
 심이핀꽃 薔園薔薇  
 다핀가지 덜핀나무  
 짐을 들너시니  
 ((C本) 層層히 짐을 들녋으니)  
 武陵園이 언덕에요  
 別乾坤이 여기로다  
 桃花流水 흘러간들  
 어느漁舟 차자올가  
 雲深不知 집퍼저든  
 松下問童 뉘알손야  
 林泉에 손을씻고  
 藥爐에 찻을웃고  
 山市 野服으로  
 구름밧겨 안자시니  
 들너노니 물소래오  
 보이노니 뵈밧시라

〈B本〉

에神仙 로엇곤선  
 니웃하야 짓터두고  
 悟道새 들엇배던  
 主山으로 俯臨하고  
 眞緣이 닛도던가  
 俗慮도 절로엷다  
 석업논 두귀웃을  
 石灘에 다시시어  
 濯纓台 흘이에어  
 洗心潭 도라들제  
 風台(에) 바람살이  
 心身이 消灑하고  
 月台에 불근달연  
 불근興미 一般이라  
 石路에 흐트질너  
 數層花階 울나가이  
 절로핀꽃 杜鵑花오  
 상귀핀꽃 薔園薔薇  
 다핀나무 덜핀가지  
 짐乙들나 집乙시어  
 武陵園이 어대매요  
 別乾坤이 여기로다  
 桃花流水 흘러가던  
 어느漁舟 차자오며  
 雲深不知 집퍼저던  
 松下問童 뉘알소야  
 林泉에 손乙씻고  
 香爐에 찻乙웃고  
 山市 野服으로  
 구름미겨 안자시어  
 들이난이 물소래오  
 보이난이 뵈밧이러

## 〈A本〉

絶壁에 석근데와  
 石上에 늘근술은  
 風霜이 몇劫인고  
 못큰거시 格이로다  
 石榻에 흐른바들  
 商山翁이 뒤드간가  
 壁上에 절닌洞簫  
 王子晋이 부다간가  
 서줄어진 거문고는  
 流水曲의 音律이오  
 〔傍記〕(옛음률로)  
 鍾期瓘시 혼자타니  
 山水만 峨洋이라  
 煙霞에 짓피든病  
 獨樂으로 다났것다  
 달아리 술마시니  
 酒中謫仙 이아니며  
 門앞에 버들서니  
 五柳先生이 초뉘신가  
 書册진 저아히는  
 學文을 향라하고  
 瀑布水 빗겨진네  
 달을볼바 오느樣은  
 蓬萊山 青衣童子  
 黃庭經을 講하라고  
 雲漢을 바로진네  
 月宮을 向하느덧  
 閑暇호 저老人은  
 아히불너 웃심의고  
 靑山에 섬울캐어  
 月下烹茶 호느樣은  
 瀛洲山 늘근神仙  
 龍을불너 瑤草갈고  
 赤松에 桂樹비어

## 〈B本〉

絶壁에 석판데와  
 石上에 늘근술은  
 風霜이 몇甲이요  
 모큰것 情이로다  
 石榻에 흐른바들  
 商山翁이 뒤다간가  
 〔脫落〕  
 〔脫落〕  
 서줄어진 거문고는  
 流水曲 옛音律로  
 鍾期瓘시 혼자탄이  
 山水만 峨洋이라  
 烟霞의 지피든병  
 獨樂으로 다났것다  
 달알에 술마시리  
 酒中謫仙 내안이며  
 문앞에 버들서이  
 五柳先生 거뉘시고  
 書册진 저아해노  
 學文乙 할야하고  
 瀑布水 빗겨건네  
 달乙볼바 오나양은  
 蓬萊山 青衣童子  
 黃庭經乙 講할야고  
 雲漢乙 바로건네  
 月宮乙 향하느듯  
 한가한 저老人은  
 아하불너 웃심구고  
 靑山에 섬일미어  
 月下烹茶 한나양은  
 瀛洲山 늘근神仙  
 龍乙불너 瑤草갈고  
 赤城에 桂樹비어

〈A本〉

花下煉丹 흠이로다  
 도로어 生覺하니  
 人間淸福 님야만타  
 鶯花富貴 어덕있요  
 樹竹淸寒 또兼호되  
 梧桐明月 楊柳風도(度)  
 不用一錢 결노있다  
 宦海風波 危險호되  
 紅塵紫陌 늘근三公  
 아모리 換此환들  
 이溪山을 許諾호가  
 功名富貴 浮雲이오  
 鍾鼎玉帛 塵埃로다  
 舊時王謝 堂上燕은  
 飛入尋常 鷄집이더  
 昔日歌舞 繁華地에  
 數聲寒磬 畚이로다  
 天地無窮 이江山은  
 늘근논이 堊전만은  
 碧海桑田 變化호들  
 다할셔 잇실손야  
 누이러 傳子傳孫하야  
 肯構肯堂하먼  
 永錫其類 호리로다  
 아히야 甞준 또노아라  
 醉코늘개(가) 호노라.

〈B本〉

花下鍊丹 흠이로다  
 도로어 생각하니  
 人間淸福 내아만타  
 鶯花富貴 내차저라  
 水竹淸閑 또겸호되  
 梧桐明月 楊柳風光  
 不用一錢 결노니다  
 宦海風波 威險호되  
 紅塵紫陌 늘근三公  
 아무이 換借환들  
 이溪山乙 허탁할가  
 功名好(부)貴 浮雲이오  
 鍾鼎玉帛 전애로다  
 舊時王謝 堂前燕  
 飛人尋常 鷄집이더  
 昔日歌舞 繁華地에  
 數聲寒磬 畚이로다  
 天地無窮 이江山은  
 늘갈물도 堊서거던  
 碧海桑田 變化호들  
 다할셔 잇실소야  
 傳子傳孫하야  
 肯構肯堂하먼  
 永錫祚允 하을이라  
 아헤야 花叢나시 자버라  
 醉코늘가 하로베라.

2. 人 日 歌

止止齋 李 商 啓 作

〈A本〉

우러 묘와늘서  
 人日(에) 묘와늘서

〈B本〉

을이 미회로서  
 인일에 미회로서

## 〈A本〉

歲時伏臘 上巳清明  
 名目마당 조키니와  
 人間人日 조홀시고  
 사람인字 더욱조트  
 스름날 서로묘와  
 스름될닐 의논호서  
 一父母 우리諸族  
 百代라도 至親이라  
 寸數가 벌여간들  
 情誼뜻차 벌을손야  
 呼兄呼叔 親히호야  
 敦睦으로 崇尙호서  
 어진일은 서로호고  
 글은닐은 갖치말치  
 萬物中에 貴호스람  
 禽獸와 들은거시  
 일골로 일을것가  
 行事로 이름이라  
 사람이 사람피면  
 天地와 조홀시라  
 聖人이 닐속일가  
 사람마당 齷齪될리  
 공반든 호날(인)이  
 賢愚을 제급닐가  
 性善은 다갓트되  
 氣稟은(이) 各各달너  
 그릇치비 사람(物欲)이오  
 ((C本)그릇친바 사람이요)  
 히로운거시 血氣로다  
 人心은 危殆호고  
 道心은 殘微호야(홀테)  
 無知홀 어린사람  
 自暴自棄 호고만다  
 貴호스람 되어나서

## 〈B本〉

세시북랍 상사청명  
 명일마당 조키이와  
 인간인일 조홀제고  
 사람인씨 더욱조트  
 사람날 사람외화  
 사람되일 이논하서  
 일부모 울이제죽  
 빅디라도 지친이사  
 춘슈논 미러근들  
 정이조차 머물소나  
 호형호숙 친이호야  
 돈목을 숭상호서  
 조혼닐은 서로하고  
 구진닐은 갖치마서  
 만물중의 귀호사람  
 금수와 다든거시  
 일골노 닐은것가  
 향사로 닐은이라  
 사람이 사람되면  
 천지와 짝홀세라  
 성인(이) 남소걸가  
 사람마당 요순되리  
 공반된 호날이  
 현우을 제급닐제  
 성인은 다갓트되  
 괴품이 각각달리  
 그릇친바 불욕이오  
 허튼비 헐괴로다  
 인심이 위덕하고  
 도심이 잔미호야  
 무지홀 어린사람  
 자포자괴 호고만다  
 귀호사람 되어나서

<A本>

그아니 이틀손야  
 聖人은 못되야도  
 君子는 지어홀리  
 喜怒哀樂 本性中에  
 성덕기름 우선참소  
 성년긋터 快호닐이  
 平生을 그릇치너  
 食色은 天性이되  
 酒色은 삼가호소  
 伐性에 狂藥이오  
 亡身홀 害이로다  
 天性으로 못된사람  
 <<C本>天性으로 생긴사람)  
 自作으로 그릇치너  
 有餘함이 貴홀것가  
 艱難이 賤홀소야  
 身地도 보지말고  
 居地로 가지마라  
 저(계)사람 저된後에  
 <<C本>사람이 저된後에)  
 蠻貊에도 行홀시라  
 諸馮이 되싸이되  
 舜임금이 능시도다  
 歷山 구진비에  
 누역색갓 바슬가니  
 사람아는 陶唐氏가  
 호날님께 薦擧호야  
 두살로 사외삼아  
 萬乘位을 傳호시고  
 陋巷이 僻陋호되  
 <<C本>僻陋한 陋巷中에)  
 顏氏의 艱難보소  
 一簞食 못이거여(서)  
 의씩북이 자조빈다

<B本>

그아더 이틀손가  
 성인은 못되야도  
 군자는 지어홀리  
 회로이악 변성중에  
 황(성)내귀을 우선참소  
 성년긋터 쾌호닐이  
 평성을 글웃치너  
 식색이 천성이되  
 주색을 삼가호소  
 벌성의 광약이요  
 망신홀 害이로다  
 천생으로 못된인자  
  
 자죽으로 그릇칠가  
 유너함이 귀홀것가  
 가논이 천홀소야  
 신지도 보지마소  
 거지로 걸거시라  
 제사람 저된後면  
  
 만백에도 항호이라  
 제풍이 되싸이되  
 순님금 나시도다  
 역산 구진비에  
 누역사갓 바슬갈제  
 사람호는 도당시가  
 하날님께 천거호고  
 두살로 사외삼고  
 만성위를 천호시고  
 누함이 벽누호되  
  
 안자의 가논보소  
 일싼사乙 못이거서  
 외씩박이 자조빈너

## 〈A本〉

堯何人 舜何人고  
 不改其樂 질거호니  
 大聖이 稱贊호고  
 千秋에 欽仰호다  
 金谷 조흔터에  
 石崇의 有餘보소  
 푸른구실 빅석으로  
 고흔겨집 썬바사고  
 珊瑚樹 六七株며  
 錦步帳 五十里에  
 奢侈도 壯觀이와  
 驕氣도 過호더니  
 燭불노 지흔밤을  
 못드먹고 滅亡하니  
 百年을 貪호富費  
 千古貽笑 썬이로다  
 貽笑될닐 求치말고  
 欽仰호닐 호라호면  
 ((C本)欽仰할닐 하여서라)  
 富貴을 求호다가  
 못어드면 害만되교  
 善事을 求호라면  
 못호빅 업슬시라  
 聖人이 잇섯아라  
 五倫으로 가라치(시)니  
 第一에 父子有親  
 親字뜻 至重호다  
 嚴敬만 專主호면  
 疎遠커 호조쉬며  
 膝下에 말니놀아  
 寒溫도 못살피고  
 ((C本)寒溫도 못살피면)  
 노만흔 겨老人은  
 뒤와오지 호단말가

## 〈B本〉

노하인 순하인고  
 불개기락 질겁도다  
 덕성이 칭찬호고  
 천추의 흠양호니  
 금곡 조흔터의  
 석승의 유려보소  
 푸른구실 빅석으로  
 고흔제집 썬바사고  
 산호수 육진주며  
 錦步障 五十里에  
 사치도 장키이와  
 고기도 과호더니  
 촛불의 지흔밤을  
 못다먹고 멸망호니  
 빅연을 탐호부귀  
 천고위세 썬이로다  
 위세될닐 구치말고  
 희망호일 호사이다  
  
 부귀는 호날니요  
 못어드면 害만되교  
 인성을 힘호다가  
 못호빅 업스이라  
 성인니 이섯아라  
 오을을 가득치시니  
 제일에 부자유친  
 친자뜻 지중호니  
 원경만 견유호고  
 소원과 갓틀세라  
 설(술)호에 멀이도라  
 혼은을 못살피이  
  
 나만호 저로인이  
 할피이지 호단말가

<A本>

니우제 갈디업고  
 洞內에 울리업서  
 큰아큰 빈방안에  
 셨진머시 혼자시니  
 主人업논 孤客이오  
 손도아닌 獨夫로다  
 親愛논 아니하고  
 三姓으로 奉養호들  
 그거시 孝誠이며  
 그거시 倫情일가  
 家勞더로 奉養하고  
 至誠으로 親愛호소  
 第二에 君臣有義  
 臣義을 알건만논  
 功名이 薄命하야  
 風雲이 期約업서  
 ((C本)靑雲에 期約업서)  
 草野에 虛老호니  
 忠義行키 어렵도다  
 上下坪公私田을  
 김피르고 조로미여  
 上父母 下妻子의  
 飢寒도 힘써면하고  
 ((C本)飢寒도 免케하고)  
 王稅도 愆期물고  
 官穀도 趁時호면  
 田里에 사논百姓  
 ((C本)四里에 사난百姓)  
 그도호호 職分이라  
 第三에 夫婦有別  
 人倫의 으뜸이라  
 二姓(으로) 配合하야  
 ((C本)二姓이 配合하야)  
 情地가 無間호니

<B本>

니우제 갈디업고  
 洞內에 오리업서  
 크나큰 빈방안의  
 더진덜기 안저서리  
 主人업난 고각이요  
 손도인 獨부로다  
 친이논 아니하고  
 삼생으로 봉양호달  
 그거시 효성이며  
 그거시 인정일가  
 가세더로 봉양하고  
 지청으로 친이호소  
 제이에 군신유이  
 신의를 알너지와  
 공명에 박명하야  
 <脫落>

<脫落>

층이항키 어렵또다  
 상하평 공소전을  
 밭피갈고 자로미고  
 상부모 하처자의  
 괴홀도 심써면코

왕세도 건기발고  
 관곡도 진시호며  
 전니의 사논백성

그도호호 직분이시  
 세순(에) 부부유별  
 인윤의 비롯서라  
 이섬으로 배합하야

정지가 무궁호니

〈A本〉

〈脫落?〉

〈脫落?〉

〈脫落?〉

〈脫落?〉

枕邊에 曲聽말고  
이불밧티 私謀말소  
夫婦에 法일우면  
家邦도 御거하리  
第四에 長幼有序  
序字뜻 들어보소  
年歲高下 달으거든  
老少分義 업슬손야  
남으어른 녀섬기면  
남으少年 날섬질리  
차차로 敬長하면  
風化의 美事로다  
第五에 朋友有信  
人倫의 盛事로다  
사람이 벗이업고  
벗잇서도 信업스면  
平生에 信이업스

〈〈C本〉벗잇서도 信업서서〉

〈〈C本〉平生에 信업스면〉

어버인들 섬길손야  
懷抱을 알아업서  
成德키 어렵소다  
益友도 세슬두고  
損友도 세슬두고

〈〈C本〉셋을두어〉

五倫에 信잇스면  
五行에 土갓도다  
仁義 禮智中에  
信업시 될손야  
賁善도 발키하고

〈B本〉

설암귀 아조쉬여  
가법이 업실세라  
빅연을 동덕하야  
닐심으로 상경호소  
침번말 꼭청말고  
리불미티 사담마소  
부부에 법이릴면  
가방도 어거하리  
제사에 장유유서  
서지뜻 드러보소  
연세고하 달어것던  
노소분의 업실소야  
나무어런 녀섬기면  
나무소연 날섬기여  
차차 경장하면  
풍화의 미사로다  
제오에 봉우유신  
닐윤의 성치로다  
사람이 벗이잇서  
벗잇서도 신업시면  
평삼의 실(신)업서면

어버인들 섬길소야  
회포을 알아업서  
형피키 어렵소다  
익우도 세슬두고  
손우도 세슬두고

오윤의 벗잇시미  
오향의 토갓도다  
일이 예지중에  
신업지 되을소야  
착선도 불키하고

<A本>

燕樂도 麗히 호소  
管鮑의 조훈誼가  
이절들 업슬손야  
三千威儀 三百禮에  
이더섯시 納額이라

<脫落?>

<脫落?>

諸子百家 通史類은  
博覽으로 보아두고  
四書三經 禮記等은  
基業으로 강습호소  
聖訓을 쫓나고더  
家訓을 이질손야  
世忍軒 참는뜻과  
日省齋 살판닐과

<脫落?>

<脫落?>

<脫落?>

<脫落?>

守拙堂의 拙호뜻과  
忍齋의 겸든마암  
隱亭의 수문지취  
一體로 온바드면  
너몸에 病이업고  
남안이 미어홀리  
西橋도 이뜻알아  
이코음 設施호니  
一家親戚 묘은다에  
니웃親故 더욱쫓타  
永錫齋 三間房에  
발털업서 비겨안져  
寒溫을 헐터달듯  
온갖노됨 재촉호제  
行盃前에 醉호興에

<B本>

선락을 중이호더  
관포의 조훈의가  
사제들 업실쇼야  
삼천위의 삼백에에  
이나사시 강영아라  
힘하고 힘남거면  
학문도 호사이나  
제자빅가 통사유논  
박남으로 보아두고  
사서삼경 예기등은  
괴업으로 강습호소  
성훈을 쫓나고더  
가훈을 이질쇼야  
생(세)인헌에 참는뜻과  
닐성적의 살판마암  
날날로 삭다향코  
더더로 본배오며  
구세동거 나도호이  
빅항원을 뒤뚱호과  
수굴(꼴)당의 곱(꼴)호뜻과

<脫落>

은정에 슈문마암  
닐체로 본배오며  
대몸의 병이업서  
남안이 미어홀리  
서오도 이뜻아라  
이되음 설시호니  
닐가친적 띄은중의  
니웃친고 더욱쫓외  
영석적 삼간방에  
발털업서 비겨안져  
한은을 열서말셔  
강로음 재촉호너  
항배전의 취호흥이

## 〈A本〉

술이아닌 情이(로)라  
 ((C本)行盃前 醉한興에)  
 ((C本)風樂소래 振動한다)  
 伯氏는 櫛을불고  
 仲氏난 篋을불고(니)  
 거문고 통소슬래  
 잡된것이 화목이라  
 두어라 날마당 人日이면  
 사람될가 亨노라

## 〈B本〉

술이아어 정이로다  
  
 빅씨는 櫛을불고  
 줌씨는 篋을불고  
 거문고 통소노이  
 잡된것 화목이라  
 두어라 날마당 인일이며  
 사람될가 亨노메라.